

광주항쟁 기념주간 선포

5·18 정신계승 및 민자당 분쇄투쟁 전개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를 '광주항쟁 계승주간'으로 선포하고, 상항국, 전시회등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광주항쟁 10주년과 전대협 제4기 발족식'을 맞아 민자당분쇄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증적으로 전개하기위해 파벌 분임토의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5일: 민자당해체와 광주항쟁 계승주간 선포식, 오후 2시, 노천극장

△17일: 상항국, 교내 곳곳(교내 문화대 참가)
△18일: 광주항쟁 10주년기념 및 민자당해체를 위한 자주경회 결의대회, 노천극장(수원캠퍼스와 공동집회)
△19일: 전대협발족식 참가, 오후 6시
△20일: 망월동묘역 순례(오전), 국민대회 참가(오후 2시)
또한 이번 계승주간동안 제3차 자료집 발간, 분임토의, 단대·과별 토론, 생활놀이미술공동체 판노천극장

화전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늘 오후 1시부터 민주광장에서 '광주항쟁 계승 주간 및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를 위한 민족자주경회 투쟁선포식'을 가지며 기간동안 매일 집회및 행사와 과총회를 열어 '광주항쟁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반민자당투쟁을 증폭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계승주간동안 체육과대학 학생회는 체육과대학관 휴게실에서 광주항쟁 당시의 기록 비데

오를 상영한다.
지난 10일 1차신청을 마감한 '광주성지순례'와 전대협출범식 참가단 모집은 오는 16일까지 연

대외장학금 지급현황 발표

총4백69명에 2억3천4백여만원

양캠퍼스 학생회는 90학년도 1학기 대외장학금 지급현황을 발표했다.

보훈장학, 군위탁장학등 서울

장하여 출발은 오는 18일 서울캠퍼스에서 한다.

한국장학회 학자금 대어

'한국장학회'는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 또는 대어한다.
학자금 지급금액은 매학기 공납금 전액과 기숙사비및 도서비이며, 소정의 신청서류와 학교내 절차를 거쳐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대외장학금 지급현황 발표

총4백69명에 2억3천4백여만원

캠퍼스 71가지, 수원캠퍼스 25가지가 집행된 이번 대외장학금은 총액 69명에 총2억3천4백12만8천9백원이 지급되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지난 8월까

지 총3백40명에 1억6천5백75만5천7백원이 지급되어 작년 대비 49명의 인원이 줄었으나 금액면에서는 4백6만5천2백50원이 더 지급되었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지난10월까지 총1백29명에 6천8백37만3천2백원이 지급되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인원, 금액 모두 감소했다.

이는 장학재단측의 경영상 어려움과 성적표제출·등록금징수의 지연등으로 신청서류를 기일내에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인것으로 알려졌다.

총대의원회 의장 인정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와 '총대의원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8일 총대의원회 의장 선출에 관한 자격문제시비를 종결하고 김재호(환경·4)군을 총대의원장으로 인정하는데 합의했다.

시작된 90년대의 위대한 경희역사



총장 조영식 박사

뜻깊은 개교 41주년을 맞아 우리 모든 경희인의 가슴속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의 개교 40주년을 뒤로하고 다시금 희망의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며 재도약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향후 10년은 우리의 새로운 의지의 역사가 결정되어질 10년이요 또한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한 세기를 맞아 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반세기전, 제15회 학원제 개최식에서 본인은 개교 50주년,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다 나은 대학 건설운동은 우리의 목표성취를 위하여 모두가 목적이식을 통일하고 각자 자기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창조와 추진 그리고 중형의 유기적인 협조를 얻음으로써 일의 완성을 기하며 최선을 지향하는 점진개선주의로 최선에 도달하자는 것"입니다.

전체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부분적 효과라 할지라도 완전한 성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의 총동원으로 협동적 위력을 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세계적인 대학의 건설이 경영 불가능한것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손에 의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오늘의 경희를 만든데 비하면 앞으로 길은 더욱 쉬

개교41주년 기념축사

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도리어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하였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불연(不然)이던 적어도 우리들의 후계자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하여서는 꼭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적어ছিলেন.

이것은 개교 50주년, 100주년을 바라보며 그 당시 설립자로서의 후배들에게 보내는 당부였습디만 오늘의 이 시점에서도 우리 모두가 꼭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신이야말로 그 동안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 온 경이로운 기적의 역사창조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연장이 오늘이요 또한 미래는 다름 아닌 오늘의 연장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물려있는 역사적 교훈을 채득함은 오늘을 값있게 보람있게 살기위한 필수조건이며 더더욱 내일을 향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양분인것입니다.

진전하는 경희인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가 주어졌습디다.

학교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굳게 뭉쳐 오지 '하먼 된다'는 신념 하나로 기적을 이루어냈듯이 오늘 이 시점에서 '2천년대를 이끌어갈 세계속의 경희를 기필코 이루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시시비비(是是非非)하는 소아를 버리고 학교발전이라는 총체적(總體的) 목표를 바라보며 일로매진할때 우리의 목표는 기필코 성취될 수 있을것이라고 확신하며 여기에 우리 모든 경희인의 응집된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는바입니다.

90년대의 위대한 경희역사! 너와 나, 우리 모두의 힘으로 함께 이루어봅시다.

감사합니다.

학교발전이라는 목표아래 모두의 힘으로 매진할 때

체과대 체육대회 개최

체과대 학생회는 오는 22일 체육과대학 대운동장에서 '춘계 체육대회' 결승전을 개최한다.

체육학과 4개팀, 태권도학과 1개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선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예선전을 치른 축구, 배구, 농구, 소프트볼(여자)의 결승전이 치뤄지며 실내축구(여자), 율법기, 육상, 마라톤등은 당일날 예선전과 결승전이 함께 진행된다.

노조 학교당국과 임금교섭 결렬

직급간 임금 인상방법이 가장 큰 쟁점

학교당국과 직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90년도 제4차 임금교섭'이 양측의 인상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본관 기획위원실에서 있었던 임금교섭에서 노조측

은 △사무·기능·관리직 3만원, 환경직 4만원 정액인상 △전직급 4만원 정률인상 △정직급수당 지급 등의 18.04%인상안을, 학교측은 △전직급 2만원 정액인상 △4.5% 정률인상 △정직급수당 2만8천원 지급 등 11.58% 인상안을 주장했다. 협상과정에서 노조측대표(서울지부장의 5인)는 "학교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사무직에만 절대적이 증가하는 것은 노조가 기본적으로 정한 분배의 원칙에 맞지않다"고 말했다.

또 학교측은 "작년 임금이 하후상박이었던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 적당 및 적당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13억정도의 예산에서 학교당국은 '중장기발전계획'중 학교

행정전산화, 건설가계정 책정등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타 대학 수준에서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노조측은 '정액인상 축소, 행정수당 증액'등은 노조활동에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사무직의 임금을 더 많이 인상함으로써 노조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유공조 서울캠퍼스 기획관리실장은 "비영리단체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감에 입각해 최대한 대화로 문제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학교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직원노동조합 수원지부는 오는 15일 오후 1시에 체육과대학관 시청각실에서 90학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및 예산안 승인을 안건으로 한 정기총회를 가진다.

'썩빔' 벽그림 복구 17일 완성

총학 운영회비·티판매로 비용충당

미술교육학과 미술과 '썩빔'이 벽그림 재복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문리대 벽그림 재복구작업을 실시한다.

지난 8일, 9일 양일간 작업대를 설치 했으며, 재복구작업에 쓰이는 비용은 총학운영회에서 1백50만원과, 문리대 학생회에서 실시한 T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작년 6월 20일 완성된 벽그림이 1차스프레이 낙서사건, 2차원페인트 파괴, 3차 콜타르 파괴사건등에 관하여 이번 재복구작업시 재파괴 행위를 막기위해 벗어나루를 옮겨 심는 문제와 차양을 설치하는것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썩빔'에서는 차기사업으로 5·18기념군상제작을 위한 준비도 진행중에 있다.

詩문에 현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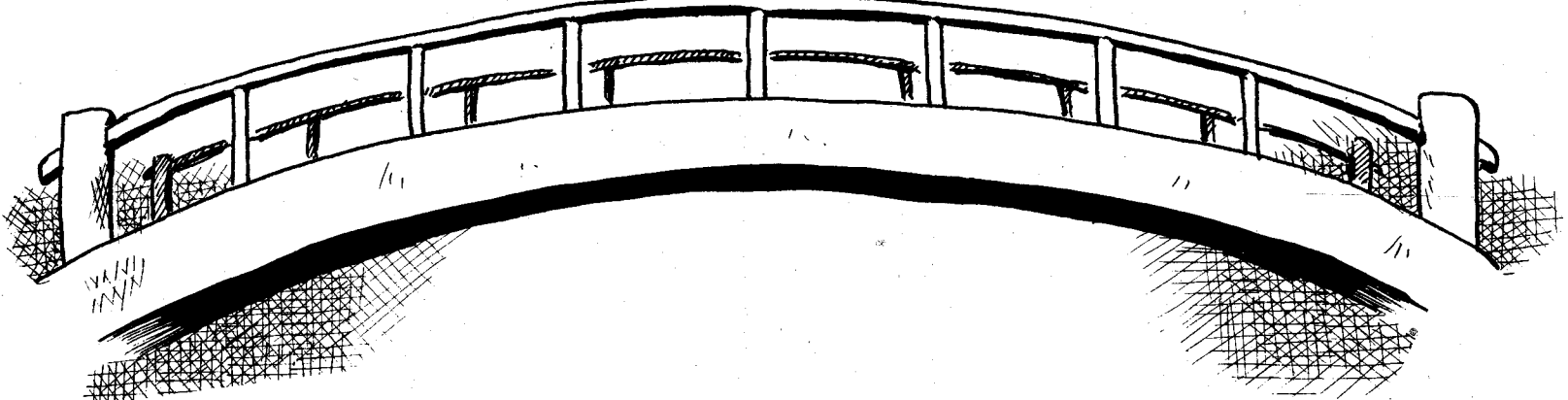
21일 마감, 형식제한없이 3편이상

본사는 개교 41주년과 창간 35주년을 기념하여 대한인들의 문예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작능력의 질적 교양을 위해 제1회 대학주보 詩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 ▲ 응모기간: 1990년 5월 21일까지
- ▲ 응모부문: 시(원고량,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 ▲ 원고제출처: 본사 편집실 및 수원캠퍼스 편집실
- ▲ 심사: 교내 전공교수 2인1과 본사가 의뢰한 시인과 문화평론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본사 주관교수로 하여 총 6인으로 구성, 심사한다.
- ▲ 입상작 발표: 6월 4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 ▲ 입상작 처리
 - 1) 당선작 1편: 상금 20만원과 상패 및 90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액지급
 - 2) 가작 2편: 각 상금 10만원과 상패 및 2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 3) 입선작 4편: 대학주보 게재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대 학 주 보 사

개교 41주년 기념 대학주보 기획광고



“다시 놓아야 할 무한한 역사의 다리”

이제는 새로운 다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40년의 고개를 넘어 41주년을 맞은 경희의 자랑스런 발자취.

그러나 경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 진리와 자유가 살아 숨쉬는 대학

세계에 도전하는 대학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모두 새로운 도약을 시도할 때입니다.

미래 경희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우리모두의 노력들을

하나하나 모아 미래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무한한 창조의 다리를 놓을때입니다.